

미디어 활용 역량이 미디어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우려 그리고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s of Media Usage Competencies on Media Literacy, Privacy Concerns, and Life Satisfaction)

노미진*, 장성희**

(Mi Jin Noh, Sung Hee Ja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활용 역량이 미디어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우려, 그리고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 미디어통계포털의 설문 데이터 4,767개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SNS, 인스턴트 메시지 및 스마트 기기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넷 활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프라이버시 우려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프라이버시 우려는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활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우려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미디어 활용 역량 ; 미디어 리터러시 ; 프라이버시 우려 ; 삶의 만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media usage competencies on media literacy, privacy concerns, and life satisfaction. Using 2025 data from the Media Statistics Portal,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and tested hypothes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AMOS. The results show that competencies in social media, instant messaging, and smart device usage have positive effects on media literacy, whereas internet usage competenc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addition, media literacy has positive effects on both privacy concerns and life satisfaction, whereas privacy concern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among media usage, media literacy, privacy concerns, and life satisfaction, and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 keywords : Media Usage Competence ; Media Literacy ; Privacy Concerns ; Life Satisfaction

I. 서론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중심의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

러시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1,2].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능력뿐 아니라, 메시지를 생산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3]. 이러한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 정회원, 계명대학교 경영빅데이터학과, 제1저자

** 정회원, 경북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교신저자

접수일자 : 2026년 04월 29일

수정일자 : 2026년 05월 20일

게재확정일 : 2026년 05월 26일

교신저자 : 장성희 e-mail: shjang@knu.ac.kr

데 중요한 기반이 되며, 나아가 개인의 미디어 활용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미디어 활용 역량이 개인의 인지적 판단을 넘어 프라이버시 우려 및 삶의 만족과 같은 심리·정서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및 연구 동향 분석[1], 측정 도구 개발[4]과 같은 연구를 비롯하여, 미디어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5,6], 디지털 이용역량과 활용이 개인정보 위험인식 연구[7], 프라이버시 우려 및 SNS 이용과의 관계[8,9]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개인의 정보 처리 능력, 프라이버시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별 변수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디어 활용 역량이 미디어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우려 및 삶의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발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정보 과잉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활용 역량이 이러한 인지적·심리적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실증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디어 활용 역량이 미디어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우려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미디어 활용 역량이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1. 미디어 활용 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동일표본 추적조사로, 미디어 보유 및 이용과 관련

된 추세를 분석한다. 2025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인스턴트 메시지, 인터넷, 이메일, 기타 활용 등 다양한 미디어 이용 행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항목을 기반으로 SNS, 인스턴트 메시지, 인터넷, 스마트기기 활용 등 디지털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미디어 활용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평가·생산하는 역량으로,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와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10].

선행연구는 미디어 활용 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 이용 경험이 정보 이해 및 평가 능력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5,9,11,12]. Xiao et al.[9]은 SNS 이용이 뉴미디어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엄혜미·강소라[5]와 김현정·김범수[12]는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이 비판적 이해능력과 정보 사실성 판단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rdat et al.[11]은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결과,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온라인 정보탐색 전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소셜미디어, 인터넷, 웹 기반 활동 등 다양한 디지털 이용 경험이 디지털 리터러시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었다[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미디어 활용 경험이 정보 이해 및 평가 능력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활용 역량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미디어 활용 역량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SNS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인스턴트 메시지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인터넷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스마트 기기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미디어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우려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우려는 디지털 및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수집, 추적, 분석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로 인한 통제 상실 및 정보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다[13,14].

많은 선행연구에서 리터러시가 프라이버시 우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12,15]. Liao et al.[15]은 인터넷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식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프라이버시 우려가 더 커진다고 하였다. 김시정·최상옥[7]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개인정보 위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책적·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현정·김범수[11]는 정보사실성 판단 능력이 프라이버시 우려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신지민 외[8]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프라이버시 우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프라이버시 우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미디어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대인관계, 업무, 여가 등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

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6]. 여러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엠헤미·강소라[5]는 디지털 문화에서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유사하게, Jung et al.[6]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프라이버시 우려와 삶의 만족

프라이버시 우려는 개인정보 노출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우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ombardi and Ciceri[17]는 디지털 공간에서 빈번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사생활과 그에 따른 행복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Quach et al.[18]은 데이터 취약성과 같은 프라이버시 우려는 소비자의 온라인 웰빙에 부(-)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우려는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프라이버시 우려는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1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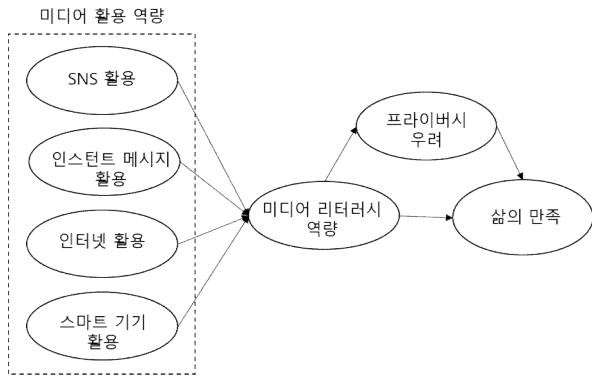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자료 수집 및 변수 측정

본 연구는 미디어 활용 역량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프라이버시 우려,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5년 미디어통계포털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미디어 활용 역량 중에서 SNS 활용이란 SNS 계정을 게시물 업로드, 공유, 공감에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스턴트 메시지 활용이란 문자 및 서비스 메시지 작성 및 전송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인터넷 활용이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검색, 모바일뱅킹, 쇼핑 거래 등 활용 정도로 정의하였다. 스마트기기 활용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파일 전송, 문서 작성, 스팸 차단 등 스마트 기기 활용 정도를 의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란 미디어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타당성 근거 제시, 상업적 및 정치적 의도 판단 등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프라이버시 우려는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우려, 개인 정보 삭제 및 도용 등에 대한 걱정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이란 내 삶의 만족 정도로 정의하였다. 표 1은 연구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구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SNS활용	SNS계정으로 게시물 업로드 SNS계정으로 게시물 공유 SNS계정으로 게시물 공감
인스턴트 메시지 활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 작성 메신저 서비스 메시지 작성 인스턴트 메시지 전송
인터넷 활용	스마트기기에서 무선 네트워크 설정 스마트기기에서 검색엔진 정보 검색 스마트기기에서 모바일뱅킹 금융거래 스마트기기에서 쇼핑 거래
스마트 기기 활용	스마트기기 환경설정 스마트기기 파일 전송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 설치/삭제/업데이트 스마트기기 문서 작성 스마트기기 스팸 차단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미디어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미디어 정보의 타당한 근거 제시 미디어 정보의 상업적 의도 판단 미디어 정보의 정치적 의도 판단 미디어 정보의 다양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 정보 검색
프라이버시 우려	온라인상 나의 프라이버시 우려 온라인상 나의 정보 삭제에 대한 우려 온라인상 나의 정보 요구에 대한 우려 온라인상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우려 온라인상 개인 정보 도용에 대한 우려
삶의만족	나의 삶은 이상에 가까움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음 내 삶에 만족함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을 이루어냄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4,767개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6.7%, 여성이 53.3%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을 보면 50세에서 59세가 2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세에서 49세가 20.1%, 60세에서 69세가 16.7%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을 보면 대학교가 60.7%, 고등학교가 33.0%를 차지하였고, 월 수입을 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26.6%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2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인구통계적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	2,226	46.7
	여	2,541	53.3
연령	19세 이하	268	5.6
	20세~29세	682	14.3
	30세~39세	641	13.4
	40세~49세	958	20.1
	50세~59세	1,314	27.6
	60세~69세	798	16.7
	70세 이상	106	2.2
학력	초등학교	30	0.6
	중학교	178	3.7
	고등학교	1,571	33.0
	대학교	2,892	60.7
	대학원	96	2.0
수입 (월)	소득없음	1,230	25.8
	50만원 미만	99	2.1
	50만원~100만원 미만	95	2.0
	100만원~200만원 미만	358	7.5
	200만원~300만원 미만	1,267	26.6
	300만원~400만원 미만	1,009	21.2
	400만원~500만원 미만	435	9.1
	500만원 이상	274	5.7
합계		4,767	100

3. 신뢰성과 타당도 분석

본 연구는 항목 사이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살펴보았으며, 신뢰성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확인적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표준화 계수 값이 0.6 이상인 항목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성개념들에 대한 측정항목의 신뢰성(ICR)을 살펴보면 모두 0.6 이상이므로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성개념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VE 값을 살펴보았고, 모든 값이 0.5 이상이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4는 판별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관계수 값이 AVE 제곱근 값보다 낮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

표 3. 신뢰성과 타당성

변수	표준화계수	Cronbach's Alpha	ICR	AVE
SNS활용	0.625	0.780	0.800	0.576
	0.867			
	0.773			
인스턴트 메시지 활용	0.921	0.949	0.950	0.864
	0.951			
	0.921			
인터넷활용	0.876	0.938	0.940	0.797
	0.884			
	0.902			
스마트기기활용	0.902	0.959	0.956	0.816
	0.917			
	0.923			
	0.917			
미디어리터러시역량	0.878	0.936	0.936	0.746
	0.848			
	0.853			
	0.865			
	0.875			
프라이버시우려	0.919	0.960	0.965	0.847
	0.920			
	0.905			
	0.863			
	0.938			
삶의만족	0.831	0.892	0.893	0.676
	0.854			
	0.827			
	0.827			
	0.770			

NFI=0.940, IFI=0.941, CFI=0.941, RMSEA=0.067

표 4. 상관관계분석

변수	SNS	인스턴트	인터넷	스마트기기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삶의만족
SNS	0.789						
인스턴트	-0.067	0.930					
인터넷	-0.109	0.761	0.893				
스마트기기	-0.085	0.498	0.817	0.903			
리터러시	0.019	0.183	0.282	0.363	0.864		
프라이버시	-0.036	0.177	0.249	0.204	0.428	0.920	
삶의만족	-0.034	0.006	0.021	0.094	0.198	0.093	0.822

대각선값은 AVE 제곱근값임

4. 분석결과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가설 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았다. 첫째, SNS활용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이는 SNS 계정으로 게시물 업로드나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개인일수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스턴트 메시지 활용이 높을수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다는 가설 1-2가 채택되었다. 문자 메시지 작성이나 전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개인일수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스마트 기기 활용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스마트 기기 파일 전송, 문서 작성, 스팸 차단과 같은 역량이 뛰어난 개인일수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터넷 활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의 관계를 검증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이는 정보 검색, 금융 거래, 쇼핑 거래와 같은 역량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스마트기기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는 비판적 사고를 하기보다는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우려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2와 3은 채택되었다. 즉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있는 개인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디어 정보에 대한 역량이 있는 개인들은 이에 대한 풍부한 정보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우려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즉, 온라인 상에서 개인 정보

보 삭제 및 도용과 같은 프라이버시 우려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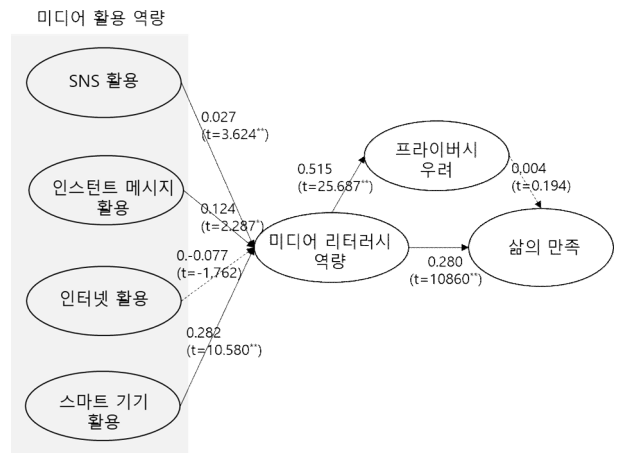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방정식 결과

표 5.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회귀계수	t값	결과
H1-1	SNS→리터러시	0.027	3.624 **	채택
H1-2	인스턴트→리터러시	0.124	2.287 *	채택
H1-3	인터넷활용→리터러시	-0.077	-1.762	기각
H1-4	스마트기기→리터러시	0.282	10.580 **	채택
H2	리터러시→프라이버시	0.515	25.687 **	채택
H3	리터러시→삶의만족	0.280	10.860 **	채택
H4	프라이버시→삶의만족	0.004	0.197	기각

**p<0.01, *p<0.05

NFI=0.934, IFI=0.935, CFI=0.935, RMSEA=0.070

IV. 결 론

본 연구는 미디어 활용 역량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프라이버시 우려, 그리고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활용 역량은 SNS 활용, 인스턴트 메시지 활용, 인터넷 활용,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25년 미디어통계포털 데이터 4,767개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를 보면 미디어 활용 역량 중에서 SNS 활용, 인스턴트 메시지 활용, 스마트 기기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1-1, 1-2, 1-4는 채

택되었다. 반면, 인터넷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므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프라이버시 우려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2와 3은 채택되었다. 반면, 프라이버시 우려가 삶의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디어 활용 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두 변수 간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미디어 활용 역량은 디지털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를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평가·생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인터넷 활용을 단순한 기능적 사용 수준의 변수로 구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기능적 활용과 비판적 리터러시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인터넷 활용이 반드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 우려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온라인 상의 심리적인 우려가 실제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개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 본 연구는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프라이버시 우려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단순하게 온라인 상의 우려보다는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등이 주관적인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므로, 복지 정책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의 연령이 40대와 50대에 편중되어 전체의 47.7%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A. Alquaary, O.A. Ali, and H. Fayez, "A critical scoping analysis of digital media literacy research in selected Arab and international journals (2016 - 2025)," *Frontiers in Research Metrics and Analytics*, Vol. 11, Article 1746718, Mar. 2026.
- [2] 노미진, 이충권, "빅데이터 분석능력과 가치가 비즈니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미디어저널*, 제10권, 제1호, 108-115쪽, 2021년 3월
- [3] S. Livingstone, "Media literacy and the challeng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Communication Review*, Vol. 7, No. 1, pp. 3-14, 2004.
- [4] 정미현, 김재현, 황하성,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의 개발 및 예측타당성 검증 연구,"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제22권, 제4호, 51-63쪽, 2021년 8월
- [5] 엄혜미, 강소라, "디지털 문화에서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제23권, 제3호, 181-192쪽, 2023년 9월
- [6] H. Jung, H. Lee, and E.W. Nam,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association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cross-sectional study," *JMIR Formative Research*, Vol. 9, e68163, 2025.
- [7] 김시정, 최상욱, "디지털 이용 역량과 활용이 개인

- 정보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257-284쪽, 2019년 8월
- [8] 신지민, 류수민, 이성식,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SNS 이용 간의 모형 검증,” *인문사회 21*, 제14권, 제3호, 5937-5947쪽, 2023년 6월
- [9] X. Xiao, Y. Su, and D.K.L. Lee, “Who consumes new media content more wisely? Examining personality factors, SNS use, and new media literacy in the era of misinformation,” *Social Media+Society*, Vol. 7, No. 1, pp. 1-12, Jan.-Mar. 2021.
- [10] N. Gutiérrez-Ángel, J.N. Sánchez-García, I. Mercader-Rubio, J. García-Martín, and S. Brito-Costa, “Digital literacy in the university setting: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studies between 2010 and 2021,”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3, 896800, Sep. 2022.
- [11] Y. Erdat, R.E. Sezer Ceren, L. Ozdemir, F. Uslu-Sahan, and A. Bilgin, “Influence of technical,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factors on digital literacy in nursing students assess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urse Education Today*, Vol. 130, 105892, Nov. 2023.
- [12] 김현정, 김범수, “스마트기기 활용역량과 프라이버시 우려: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과 정보 사실성 판단 능력의 매개효과 및 프라이버시의 조절효과,” *지식경영연구*, 제24권, 제1호, 51-72쪽, 2023년 3월
- [13] S. Barth and M.D.T. de Jong, “The privacy paradox: Investigating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privacy concerns and actual online behavior: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elematics and Informatics*, Vol. 34, No. 7, pp. 1038-1058, Nov. 2017.
- [14] 이광규, “블록체인과 영지식 증명에 기반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연구,” *스마트미디어저널*, 제12권, 제9호, 95-102쪽, 2023년 10월
- [15] C. Liao, C.C. Liu, and K. Chen, “Examining the impact of privacy, trust and risk perceptions beyond monetary transactions: An integrated model,”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Vol. 10, No. 6, pp. 702-715, Nov.-Dec. 2011.
- [16] Z. Li, D. Li, and Z. Li, “Digital literacy,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and multidimensional health behavior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rural China: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Digital Health*, Vol. 11, pp. 1-21, Sep. 2025.
- [17] D.B. Lombardi, and M.R. Ciceri, “More than defense in daily experience of privacy: The functions of privacy in digital and physical environment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Vol. 12, No. 1, pp. 115-136, Feb. 2016.
- [18] S. Quach, S. Dang, P. Thaichon, D. Le, and T. H.H. Le, “Data vulnerability: Does privacy protection behaviour improve digital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59, No. 13, pp. 207-239, Aug. 2025.
- [19] 황윤용, 김미라, “메타버스에서의 정서적 경험이 고객반응에 미치는 효과: 의료관광서비스를 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저널*, 제13권, 제2호, 156-164쪽, 2024년 2월

 저자 소개


노미진(정희원)

2001년 경북대학교 경영학석사(MIS 전공).

2006년 경북대학교 경영학박사(MIS 전공).

2026년 계명대학교 경영빅데이터학과 재직중.

<주관심분야 : 머신러닝과 데이터분석, 데이터시각화, 모바일서비스분석, 인과분석>


장성희(정희원)

2001년 경북대학교 경영학석사(MIS 전공).

2009년 경북대학교 경영학박사(MIS 전공).

2026년 경북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재직중.

<주관심분야 : 빅데이터분석, 디지털 기업가정신, 디지털 전환과 성과>